

장성 축령산 '힐링 관광지' 만든다

장성 축령산이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조성된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축령산 숲속쉼터에서 '축령산 힐링관광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장성 서삼면 주민대표단과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포 이후 참가자 전원의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숲속쉼터 일대에서는 '제12회 장성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도 함께 진행됐다.

작은음악회와 편백나무 체험행사, 판매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숲이 조성된 축령산은 1956년 춘원 임종국 선생이 사재를 털어 홀로 나무를 심어 만든 인공 조림지다.

약 157ha 면적에 수령 60년 인편의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산나무 등 상록수가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뿜어내는 전체 숲 규모는 1,150ha에 달한다.

항균물질인 피톤치드가 소나무보다 4~5배 가량 많이 배출되는 편백나무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



장성군은 지난 5일 축령산 숲속 쉼터에서 힐링 관광 선포식과 편백산소 축제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선포식 개최 사업 본격화... 산소축제도 열려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 치유의 숲 활용

가 있다. 산림청도 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2010년 축령산을 '치유의 숲'으로 지정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축령산은 오랫

동안 장성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온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축령산 편백숲을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선포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오늘 장흥서 '통합의학박람회' 개막

120개 기관 참여 13일간 통합의학 향연

2019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7일 장흥 안양면 박람회장 주무대에서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를 주제로 개막, 13일간 펼쳐진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종순 장흥군수, 박맹수 원광대 총장, 마재주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장, 광주·전남 병원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제전시관,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대체보건의학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6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전국 대학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12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체험을 펼친다.

스크린 승마, 명상·심리 치료, 통합의학 북카페, 인체모형존, 약초동산, 국화향연장, 표고버섯 율타리, 주무대 문화공

연, 트라아트 포토존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볼거리도 마련됐다. 모든 검사와 체험은 무료다.

특히 통합의학학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바이오-메디컬(Blue Bio)산업과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 건강강좌, 세미나 등을 개최해 통합의학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이 옛 장흥고교서 부지에 사업비 95억을 들여 올 하반기에 개원을 앞두는 등 기존 통합의

학시설인 통합의료한방병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천연자연연구원, 버섯자연연구원 등과 함께 장흥 일대가 통합의학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장흥은 맑고 깨끗한 블루자원과 풍부한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통합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장흥, 화순, 나주를 잇는 생물의약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장성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점포임대료·대출이자 차액 등 보전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장성군은 6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한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이며, 연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해 연 200만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

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11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은 지난 2011년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1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예술협 회원전 9일부터

화순군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화순 군립석봉미술관에서 제32회 화순예술인협회 회원전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회원전은 서예와 사진, 한국화, 문인화, 한자공예 등 총 54점이 선보인다.

회원전과 더불어 제2전시실에서는 마을의 기운을 적은 서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화순예술인협회는 2017년부터 마을 기운을 적은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마을회관에 1개씩 기증해 왔다. 한편, 예술인협회는 1991년 설립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순=서호령 기자

담양 낙후 지역개발 추진 '숨통'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공모 선정 190억 확보

담양군이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낙후된 지역개발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19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담양군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인근마을 주민이 함께 누리는 다목적센터를 신축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선정까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한전지중화사업은 내년부터 모두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로인 담양터미널-만성교 구간에 대해 공중배전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공모를 신청한 154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생사업과 담양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주민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나주시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마한문화제를 앞두고 반남면 고분군 주변에 코스모스 꽃 단지를 조성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반남면 코스모스 꽃 단지 조성

고분군 주변 7ha... 산책로·편의시설 설치

나주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앞두고 축제장 일대에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했다.

나주시는 마한문화제가 열리는 반남면 고분군 주변 시유지 7ha에 '빅스타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코키아' 등 가을꽃을 심어 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인다.

코스모스 단지 사이로 1km 구간의 산

책로를 조성하고, 파라솔, 벤치 등 편의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팝기, 사연 적기(체험), 포토존 등을 운영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강인규나주시장은 6일 "마한문화제의 표어인 '가을꽃 핀 일곱 빛깔 상상 이야기'에 맞춰 꽃 단지 산책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연말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농·축·어·임업인 연 60만원

장흥군은 6일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공익수당 조례는 지난달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

인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로부터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장흥=이육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화순 동면지사협 전기배선 교체 지원

화순군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어려운 이웃 6가구를 선정해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등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나눔 문화 확산 지원사업과 복지기대 생활불편 지원사업을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강병두 위원장은 "층층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위기 가구와 취약 계층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주인영·김청자 부부, 장성장학회 500만원 기탁

장성장학회는 주인영(78)·김청자씨(76) 부부가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주씨 내외는 1968년부터 2016년까지 장성군청 앞에서 동아약국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평생에 걸쳐 무의촌 등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유명하다. 주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읍지사협 운영회의 개최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읍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취약계층 지원 현황 보고와 소규모 주택 개보수·도배장판·보일러 교

체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백경갑 읍장은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육현 기자